

4》 학생 자치의 위기

국제캠퍼스
단과대학별
회칙 유무



5》 예산 · 재정 문제 점검



6》 대학생, 대선 후보에게 묻다



지난 달 30일 조인원 총장과 학생들이 봄을 맞이해 캠퍼스를 산책하고 있다. (사진= 이수형 기자)

학사제도 통합, 캠퍼스 명칭 변경 등 양 캠퍼스 협력 필수

총학 재선거 결과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재선거로 치러진 2017학년도 제40대 총학생회(총학) 선거에서 국제캠퍼스(국제캠) ‘디딤돌’ 선거운동본부(선본)의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회장과 이화영(기계공학 2015) 부회장이, 서울캠퍼스(서울캠) ‘열·일’선본의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과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부회장이 당선됐다.

이번 제40대 총학은 일반적인 일정보다 3개월가량 늦게 출범한 탓에 등록금 책정과 학사제도 개편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학기 중간의 재선거로 치러진 만큼 서울캠 총학은 지난 3월 31일부터, 국제캠 총학은 4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운영돼 공백 기간이 생긴 만큼 양 캠퍼스 총학은 중점 공약으로 내세운 학사제도 개편을 포함해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 대학본부 측과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그간 양 캠퍼스 대표자 부재로 인해 재수강제도와 같은 학사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졸업역량강화 TF’와 2017년 등록금

책정은 지금껏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캠 권 회장은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학사제도 개편과 기숙사 문제를 가장 우선시 해, 비대위에서 업무를 전달받고 여러 단과대학 대표들을 만나며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 역시 ▲전과제도의 제한 ▲영어강의 토의점수 대체 등 캠퍼스 간 차이나는 학사제도를 통합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국제캠 진 회장은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학업을 위한 공간인 만큼 수강 신청제도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캠 총학의 주요 공약 중 서울캠 총학과의 협력 없이는 실현

이 어려운 공약들이 여럿 존재해, 향후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입학금 사용내역 공개 ▲캠퍼스 명칭변경 ▲캠퍼스 간 학사제도 통합의 경우 진행 과정상 양 캠퍼스 차원의 논의와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캠 총학은 협력에 긍정적이다. 서울캠 권 회장은 “지난해까지는 양 캠퍼스 총학간 교류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권예하·금혜영)

13,486명

당선자

선거권자수

국제(진도원·이화영)

11,807명

50.62%

투표율

60.41%

69.55%

찬성률/득표율

71.9%

제3 중핵교과 ‘빅뱅에서 문명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①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의 탄생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 3 가지를 ‘인간’, ‘사회’, ‘자연’이라고 지정한 것은 이 무렵부터다.

초기에는 ‘인간의 가치탐색(인가탐)’과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를 중심으로 ‘인문학 중심교육’을 표방했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 후 4년 동안 준비를 한 끝에 2016년,

‘인간’에 해당하는 인가탐, ‘사회’에 해당하는 우사세, 이 두 중핵교과에 이어 ‘자연’에 해당하는 ‘빅뱅에서 문명까지’를 세 번째 중핵교과로 편입시켰다. 이는 16학번부터 필수 교양으로 선정되었으며 16학번 이후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수업인 만큼 빅문의 취지는 ‘과학에 대한 조망과 패러다임 변화를 파악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세워졌다.

그런데 세 번째 중핵교과로 들어섰던 빅문은 기존 중핵들과는 조

금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강좌 당 수강인원의 차이다. 기존의 중핵과목인 인가탐, 우사세가 40~50명 정도로 운영이 됐다면, 빅문은 80~90명을 웃도는 숫자로 시작됐다. 첫 번째 학기였던 2016학년도 1학기에는 80~90명씩 양 캠에 각각 5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약 90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구성됐다. 그러나 ‘신입생이 누적될 시 강좌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후마니타스칼리지 유정완 학장은 지난 해 3월 “과학 중핵 강좌까지 추가로 열 수 없으므로 적절히 기존 중핵교과

강좌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교수법에 있다. 인가탐, 우사세에선 채용하지 않은 ‘팀 티칭’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7명의 교수들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 등의 각 분야에 따라 ‘팀 티칭’을 하도록 구성됐다. 각 팀의 담당 교수는 되도록 중등 교육과정의 담임제처럼 전담 분야의 강의를 진행하며 담당하는 반에서는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과학 토론 등을 이끄는 방식이다.

▶3면으로 이어짐

알림

사령

66기 수습기자 <명>

▲박예령(언론정보학 2017)

▲이후승(한국어학 2017)

▲정종희(언론정보학 2017)

▲안나연(간호학 2017)

▲장유미(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6)

▲최명규(소프트웨어융합학 2017)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f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y 카카오톡 플러스 ID: 경희대 학내신문 대학주보

c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전문가 칼럼

끝나지 않은 세월호의 상처

송영복(스페인어학) 교수 ➤ 7면



시선

사설

등심위, 정해진 답을 향한 지난한 레이스

이번 양 캠퍼스 종학생회 재선거 결과 양 캠 모두에서 종학생회장단이 구성됨에 따라 그간 학생 대표의 부재 속에 정체되었던 등록금 관련 논의도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지난 두 차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와는 달리 세 번째 모임부터는 종학생회장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논의다운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가까스로 회의체 구성이 이뤄진 이 시점에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다. ‘과연 지금의 등심위는 우리학교에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등심위 제도는 지난 2010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결정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지금 우리학교의 등심위는 애초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는 의심이 든다.

수년 전부터 우리 학교의 등록금 관련 논의는 대내외적 여건의 강력한 영향 아래 일정한 박스 안에 갇혀 맴돌고 있다. 일단 대외적으로 교육부는 매 학기마다 등록금 인상을 상한선을 제시하며 ‘동결 또는 인하에 협조해 줄 것’을 각 대학에 ‘권고’하고 있다. 말이 권고지 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는 곧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참여 요건화 되며 대학 측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학생들에게 고통을 강요한다’는 비판 여론도 대학 측에는 부담이 된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우리학교가 심각한 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재정 수익의 60% 이상을 등록금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 교육부의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기도 전인 2009년 이래로 등록금 동결을 채택해오는 과정에서 재정수익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하지 못한 결과다. 그 여파는 전 구성원에게 미치고 있다. 교육여건 관련예산 등의 축소로 학생은 교육환경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교직원은 벌써 수년째 제자리인 임금으로 현실적인 고통분담에 당면해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눈치에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교 재정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서 결국 등심위의 과정은 ‘등록금 동결’이라는 정해진 답을 향해 나아가는 지난한 레이스에 불과해졌다. 그리고 등록금 가고지가 일상화될 정도로 등심위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는 사이에 예산 확정도 따라서 더뎌지고, 결국 대학은 상시 추경상태라는 기형적인 조직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내 구성원 대표가 한 데 모여 의견을 나누는 거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등심위 내에서는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인 재정문제-곧 재정수익다변화와 같은 대학의 장기적 활용에 대해 그 어떤 유효한 방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대학 측이나 구성원들이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뛰어한 대책이 없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 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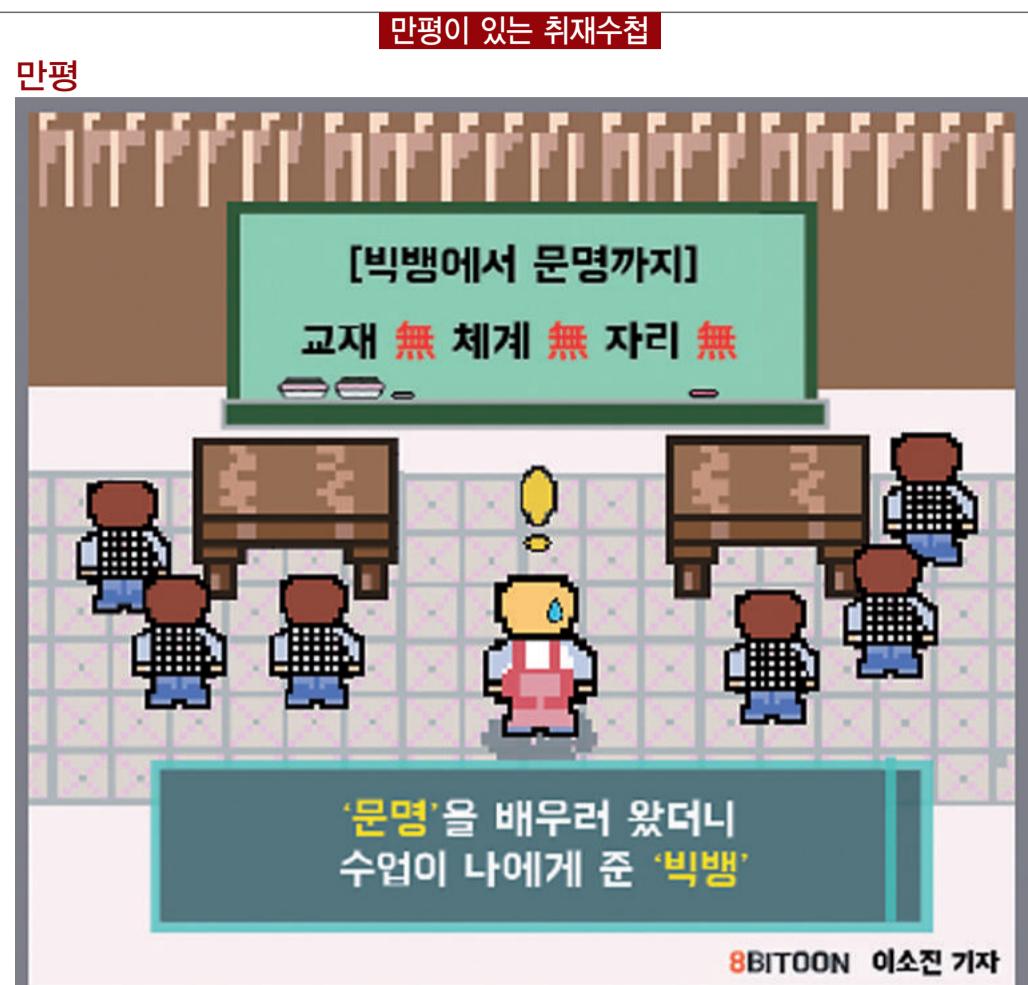
오늘도 등심위에 참석하기 위해 교직원 대표도 학생 대표도 절마다 본관으로 향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깃들어 있지 않다. ‘등록금 동결(凍結)’로 향하는 등심위를 바라보며, ‘얼어붙고’ 있는 대학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가 자꾸 틈탄다.

2017 THE 아시아 대학평가 국내 4위, 아시아 36위

미디어 여론동향 2017. 3. 20~4. 2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서울캠 진로상담교수제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저조한 진로상담 이용률…문제는?/대학주보 온라인, 2017.3.26) 지난 2006년 시행된 진로상담교수제는 학생에게 소속 학과 교수를 배정해 체계적인 진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만 최근 3년 간 이용실적은 43%에 불과했다. 지난해 학부생을 상대로 진행된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적극적인 진로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56점으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았다. 학생들은 ‘배정받은 교수님을 선호하지 않아서’, ‘뻔히 아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아쉬웠다’는 의견을 표했다. 흥보부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취업진로지원처 측은 “앞



이 주의 주제 - 제3 중핵교과 문제점 진단

‘다름’에서 비롯된 문제, 차근차근 해결해야

양윤주 기자

cyanide@knu.ac.kr

문과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이과생, 이과적 소양을 가진 문과생. 심지어는 문과적 혹은 이과적 소양을 가진 예체능생. 21세기 우리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 ‘융합’이 핵심이다. 우리학교도 이에 맞춰가고자 지난 해 16학번부터 ‘빅뱅에서 문명까지’를 제 3의 중핵으로 도입했다. 그 취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우리사회의 인재상을 봐도, 학생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적인 과학적 지식과 사고방식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취지를 이루기엔 현재 시행되는 형식과 내용은 지속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불만을 초래하고 체계적이지 않는 불안을 심어준다. 처음 해보는 시도인 만큼, 초반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며 쉽지 않은 시도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강의가 흑자에 4년 대학생활의 처음 이자 마지막인 과학강의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빅문의 많은 부족함들은 쉽게 ‘시행착오’로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같이 시행한 설문조사의 주관식 답변들을 읽고 있자면 기사에 담은 팀 티칭의 문제부터 시작해 학생이 듣고자 하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 객관식 시험이 과연 과학적 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방식인지에 대한 의문 등과 같은 강의 내부의 문제만 해도 한

페이지를 채운다. 또 한편으로는 한 강의 당 너무 많은 학생 수로 집중이 저하된다거나 대형 강의실(이를테면 청운관 지하B117호)에 대한 불편함, U-Class 시스템의 각종 오류들과 더불어 발생하는 출석문제들과 같은 강의 외부적 문제 또한 두드러진다.

취재 도중 기자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것이다. ‘제 3의 중핵교과로서 등장한 빅문은 왜 제 1, 2의 중핵교과와 달라야 하는가’

물론, 인문·사회적 분야와 자연분야의 교수법이나 교육과정 등이 방법론적으로 달라야만 한다면, 그래서 이를 통해 학문적 가치, 효과를 고양시킬 수 있다면 생각해 볼만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는 빅문의 민낯은 ‘다름’으로 인해 빛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시행착오’, ‘개선과정 중’이라는 답을 내놓을 뿐이었다.

학생들은 같은 등록금으로 동질의, 최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강의의 발전에 희생양으로 쓰이는 부분이 분명 일정 부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빅문에 관한 강의만족도가 좋게 나올리 없다. 빅문은 애초에 문과·예체능생의 새로운 길의 맛보기이자 이과생의 전공기초와 교양의 정검다리로서 등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불안했던 빅문의 발자국에 맷힌 것은 오히려 문과생과 이과생의 괴리감, 예체능생의 ‘멘붕’이었다.

앞으로 빅문은 더욱 험난한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학생들의 희생 없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때에 어엿한 세 번째 중핵교과로서 우리학교의 자랑이 될 것이다.

으로 선배 멘토 지정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많은 학생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권위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주관하는 ‘2017년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36위를 기록했다.(국내 종합사립대 4위, 아시아 30위권 진입/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3.20) 이는 지난해에 비해 6단계 오른 순위로, 국내 종합사립대 4위(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에 해당한다. 교육여건, 연구실적, 논문피인용도, 국제화, 산학협력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평가 결과 우리학교는 국제화에서 국내 1위에 올랐다. 연구 실적(아시아 34위)과 논문피인용(아시아 52위)도 역시 작년 대비 순위가 올랐다. 특히 공학, 생명과학 분야 논문피인용도의 상승폭이 컸다. THE는 영국의 ‘더 타임즈’와 제휴관계에 있는 교육 관련 주간지로, 2004년부터 세계대학 랭킹을 발표해왔다. 매년 3월에는 아시아 24개국 대학 상위 100위를 소개한다.

경희대, 중앙대, 광운대, 단국대, 조선대, 한동대 등 6개 대학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미래부, 경희대 등 '17년도 SW중심대학 6개 최종 선

정/뉴스1 외, 2017.3.28)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들 대학을 ‘2017년도 SW 중심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SW 중심대학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SW교육을 혁신하고 SW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대학이다. 올해 선정된 대학들은 SW 우주 인재 선발부터 산업현장 중심 SW전공 교육 강화 등 SW 중심의 교육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희대는 기존에 SW관련 지원 사업 수행 대학이었지만, 이번에 SW 중심대학으로 확대 전환됐다.

‘아빠가 돌아가신지 보름이 지났다’는 글(#경희숲_20710, 2017.3.24)은 725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글쓴이는 ‘못난 딸 일과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마지막 대학까지 ‘오늘 뭐하니’라는 질문이었는데 정작 나는 사랑한다고 말 한 번 한 적 없다’며 ‘항상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던 아빠를 떠올리며 꾹 참지만 매일 우는 엄마를 보며 아빠가 원망스러워지기도 한다’고 썼다. ‘잘 할 수 있을까? 아빠 없이 이렇게 애써 밝게 지내도 되는 걸까?’는 물음을 던진 이 글에 학생들은 ‘아버지 이 볼 수 있게 더 씩씩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얼른 마음 추스르고 아버지가 기뻐 할 수 있게 이쁘게 살아가자’ 등의 응원을 남겼다.

경희랜드를 가꿔나갈 두 정원사의 책무

세시봉

양윤혁 (국제뉴스팀)



우리학교 주변 벚꽃 개화 시기가 4월 6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경희랜드’가 곧 개장 한다며 들뜨는 모양새다. 이와 거의 동시에 양 캠퍼스 종학생회도 출범했다. 이들은 경희랜드를 가꿔나갈 두 ‘정원사’다.

이전 종학생회가 통상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 제49대는 조금 늦은 시작을 했다. 등록금 협상과 수많은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은 늦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강화 수학중을 중심으로 수업의 질 저하를, 교수들은 연구지원 부족과 함께 각종 수당 축소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산적한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은 여느 때보다 커서, 그들의 어깨는 시작부터 무겁기만 하다.

재원을 운용하고 큰 틀의 정책을 제시하는 대학본부와, 학교의 기반이 되는 크고 작은 시스템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그에 비해 학생들이 손수 내놓은 9,500원에 기반을 둔 종학생회를 비롯한 자치기구의 힘은 거대한 학교라는 기구에 비해 너무나도 미약해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세심한 노력은 분명 힘이 미쳐 학교를 바꾼다.

그들의 생각은 2만 5천 ‘학생’의 생각이 되고, 그들의 요구는 2만 5천 명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그토록 원하는 수강신청 대란을 방지하고 강좌 수를 늘리는 것만 하더라도 학교에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것은 학생회뿐이기 때문이다. 그 정당성으로부터 종학생회의 위상이 존중되고, 책무 또한 막중한 것이다.

다시 한 번 학교 안을 들여다보자. 학교에는 새로 올라가는 SPACE21 건물 공사가 한창이다. 4월 완공을 앞둔 건물들로 일부 학과들과 부서들이 이동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반짝이는 새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금도 공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단과대학에선 비게 되는 공간을 따내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학교에선 언어교육원과 같이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에 우선 눈길이 갈 수도 있다. 여기서도 종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할 테다. 강의실 부족으로 열악한 학과들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밖의 일로부터도 우리학교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에선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대학들이 학기제, 학사제도 운영에 대한 제한을 풀어버렸다. 대학본부 측에선 다양한 시도를 검토할 것이고, 지난 날 우리에 대한 정책을 넘으로부터 통보받는 일을 또 다시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 경희랜드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경희랜드는 한 뿌리를 가지면서도 크게 두 날개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분리될 수도, 완전히 합쳐질 수도 없이 온전히 ‘그 자체로’ 길러져야 한다. 한 캠퍼스만의 발전으로 우리학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종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두 아름다운 양 날개의 균형을 맞춰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번 종학생회가 맡게 될 9개월을 동안 경희랜드는 변할 것이다. 4월의 벚꽃과 같이 만개하게 만들 수도, 12월의 메마른 가지처럼 ‘인동의 계절’을 보내도록 이끌 것인지.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n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도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디렉터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면에서 이어짐

그 외에도 다른 중핵과목들과 다르게 1,2 학기 모두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정해진 교재가 없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른바 '21세기형 인재에 맞춰 학교가 제시한 융합교육'의 일환이자 '풍부한 교양'을 위해 애심차게 첫 발을 내딛었던 빅문. 하지만 이 빅문은 2년차인 현재, 크고 작은 산들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애심차게 도입한 빅문,
학생들은 불만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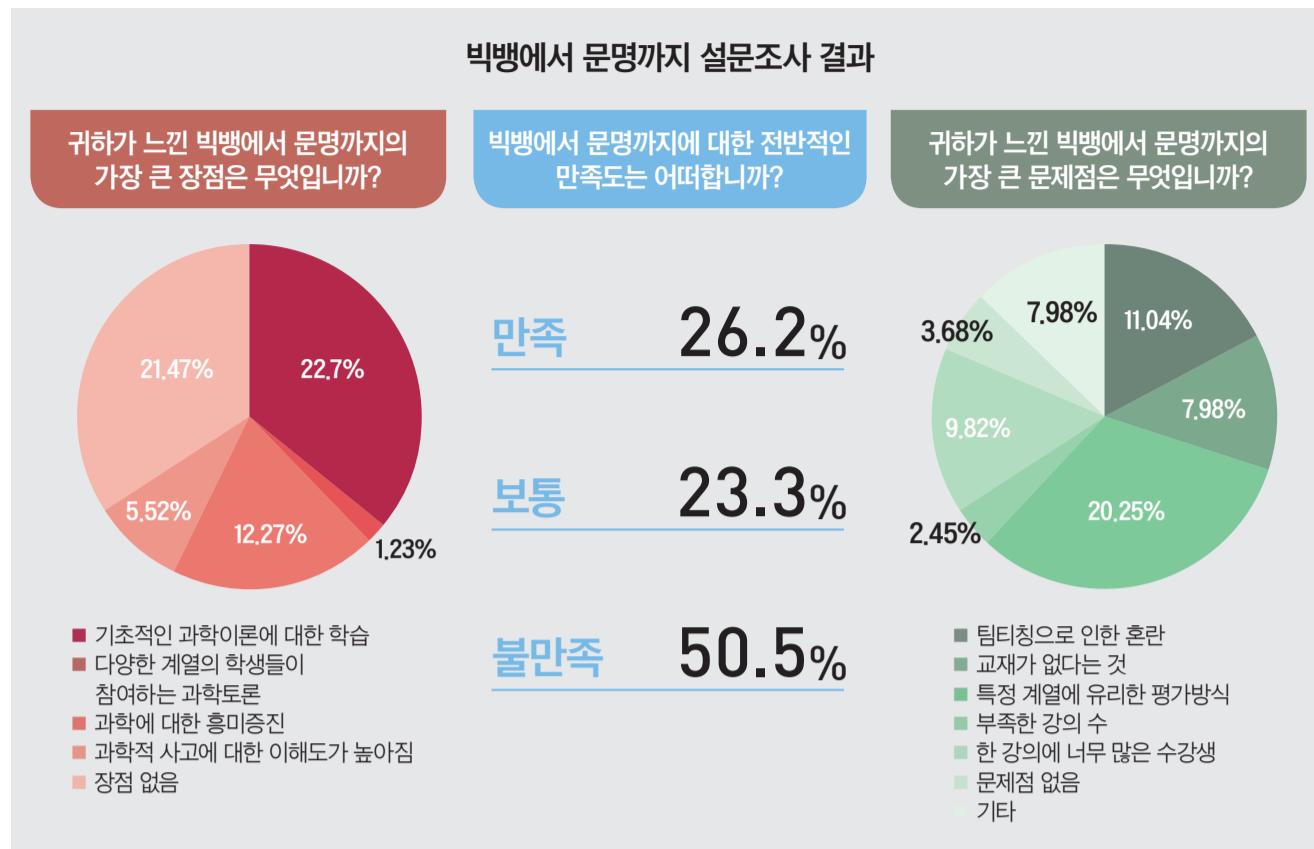
막상 이 교육의 수혜자가 돼야 할 학생들이 그 입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신문에서는 빅문에 대해 지난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흘간 우리학교 16학번과 17학번 재학생 총 1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빅문을 '수강 중' 혹은 '수강완료'했다고 답한 103명의 학생 중 불과 약 26%(27명)의 학생들만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을 따름이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이 작성한 주관식 답변들 약 2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교수법, 평가방식, 강좌 수, 강좌당 학생수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있다.

학생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교수법은 빅문이 채택한 특유의 '팀 티칭'이다. 빅문 커리큘럼 편성에 참여한 이과대학 물리학과 권영균 교수는 팀 티칭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각 교수마다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야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팀 티칭 방식을 통해 해당 분야를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있는 교수들이 담당하여 학생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들은 팀 티칭 방식의 장점보다는 혼란스러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입장이다.

팀 티칭, 그 문제와 한계

빅문을 2016학년도 1학기에 수강한 이경서(언론정보학 2016) 군은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거의 매번 바뀌는 교수님에 대한 혼란스러움이었다"며 팀 티칭 방식을 꼬집었다. 또 임세미(물리학 2016) 양도 "팀 티칭 방식이 딱히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매번 바뀌는 수업스타일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답했다.

수업 난이도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동일한 수업을 듣고도 '고등학교 과학 수준이었다'라는 응답자가 있는 반면 '수업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



지난 달 23일 크라운관에서 제3 중핵교과 <빅뱅에서 문명>까지의 1차 특강 '우주 속의 인간, 인간 속의 우주'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양윤주 기자)

는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한 강의에 뒤파여 있어 균질하지 않은 학습자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의평가도 많은 목소리를 낳는다. 한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내용과 교수에 대해 평가하는 강의평가는 학생들이 강좌에 대해 피드백 혹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 중 하나다. 현대 빅문의 경우, 강의자체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교수에 대한 평가는 애매하다. 앞서 말한 5~7명의 교수 가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교수가 특정 반에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2~3번 밖에 학생들과 만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학주보 설문조사 응답자 C씨는 "강의평가 때 교수님에 대한 항목에서 혼란스러웠다"고 답했고 이경서 군은 "2~3번 밖

에 만나지 않은 담당 교수를 생각하며 평가했다"고 말했다.

평가방식의 문제

빅문의 평가방식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말했듯 빅문은 '팀 티칭'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 반마다 팀 티칭을 하는 교수들의 구성은 차이가 있

음에도 중간, 기말시험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시험지로 치러진다. 이에 대해 우리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자 A씨는 "다른 교수님들 수업을 듣는 학우들은 과학적인 지식을 주로 배우는데 내가 수강하는 교수님은 인생, 직업관과 같은 접근을 해서 과학기반 철학수업 같았다"며 "가르치는 내용은 다른데 시험은 같이 본다는 것은 불합리"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또 다른 응답자 B씨는 교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업 체계가 명확히 잡혀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업 진행 및 시험을 치르는데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의 문제

교육환경 문제로 주로 언급되는 것은 빅문의 강좌 수 부족문제, 강좌별 수강인원 과포화의 문제, U-class 출결시스템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지난 우리신문 제1610호 사설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 수 대비 현저히 부족한 강좌 수'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해 신입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교과목을 듣지 못하는 학생이 매 해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수강신청 정정기간 마지막 날인 9월 7일을 기준으로 수강신청 이후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 및 비밀게시판에는 '빅뱅에서 문명까지' 강의를 구한다는 게시물이 총 135개 올라왔다. 현희진(언론정보학 2016)양은 "이번 학기에 듣고 싶었지만 금세 자리가 사라져 못 잡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 강좌 당 수강인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학기 220명 정원의 강좌를 수강하는 김수정(언론정보학 2016)양은 "일반 강의실이 아닌 청운관 지하의 세미나 풀에서 진행되는 만큼 뒤파에 앉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며 "15분 전부터 줄을 서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대부분의 빅문 강의의 출석체크방식으로 이용되는 U-Class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장희연(주거환경학 2016)은 "대체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출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며 "고장나지 않은 기계 찾았더니기도 바빴다"고 지적했다.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제3의 중핵교과 빅문.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신문에서는 4회에 걸쳐 빅문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Global Collaborative 2017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기간
- 장학금
- 문의

2017.06.30 ~ 07.27 [4주간]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 에 특화된 21개 강의 (GC홈페이지 참조)
국내외 대학(원)생
2017.03.13 ~ 04.30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 (추후 공지예정)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gep 페이지: www.facebook.com/khugc



보도

보상체계 앞서 회칙마련 우선돼야

학생회 자치권 개선을 위한 노력

안선흥 기자 37ahd@khu.ac.kr

【국제】 #. 우리 신문은 교내 일부 학과에서 학생 대표직을 임의의 절차를 통해 정해온 관행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참고기사: 대학주보 16호, 6면> 지난 보도 이후 학생회의 회칙제정을 통한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학교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보상체계에 대해 살펴봤다.

과 학생회장 선출 방식에 관한 논란에 대해 학생회 측에선 줄고 있는 학생 참여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며 ▲학과 단위에 맞는 선거 절차를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 ▲장학금 등 보상체계의 미비점 ▲학과 내 유대감 감소 등을 원인으로 꾸몄다. 이와 함께 일부 단과대학에선 자체 세칙 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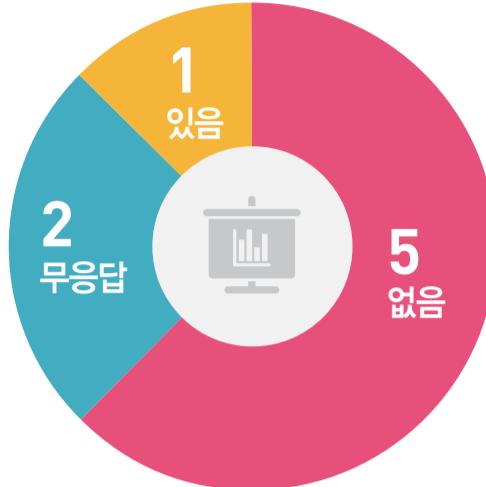
학과단위 투표 절차의 부재 세칙 제정이 필요한 지점

총학생회(총학) 회칙 선거 11장(전공/학과 학생회) 111조 2항에 따르면 ‘과 학생회장은 과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회칙에 따라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 학생회장의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크게 부당하여 해당 회원 내에서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단대 학생회가 직접 관여하여 과 학생회장 선출을 돋는다’고 명시돼 있다. 총학 회칙에 따라, 단과대학 내에서의 선거방법과 시기를 정해서 직접선거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편 단과대학 학생회 측에선 학과 단위 투표절차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회칙에 명확히 부합하지만 참관인과 추천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소수 인원의 학과에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총학 회칙에 선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과대학 학생회가 직접 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단과대학 실정에 맞는 회칙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캠퍼스(국제캠) 단과대학 별 회칙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현재 국제캠 소속 단과대학 중 자체 회칙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단과대학은 응용과학대학 한 군데가 유일했다. 공과대학과 생명과학대학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나머지 취재에 응한 외국어대학, 전자정보대학, 체육대학, 국제대학, 예술디자인대학은 별도의 회칙 없이 총학생회(총

국제캠퍼스 단과대학별 회칙 유무



학칙을 따르고 있다.

회칙은 대표자의 선출과 관련해, 학생자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의 출발은 구성원의 투표로 인해 선출된 구성원의 대표성이다. 투표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대학 학생회에선 단과대학 회칙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어대학 학생회 김주와(중국어학 2015)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외국어대학 학생회칙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 선출에 관한 내용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 학생회칙을 제정할 예정이다”며 회칙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외국어대학의 상황과 현실에 더 맞는 학생회칙 제정을 위해 제정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과대학 회칙의 부재로 볼 때 단과대학 및 학과 운영 과정이 공적인 절차보다는 관행에 기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회칙이 존재하지 않는 단과대학 소속 학과들 중 물려주기 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학과는 71%로 나타났다. 체육대학 그리고 1개 학과를 제외한 예술디자인대학에선 단과대학 회칙이 없음에도 학과 학생회장에 대한 자체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관행에 의존하고 있을 뿐, 구조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장학금 등 보상체계의 미비점 소통이 필요한 시점

학생회 측에선 학생자치 정상화를 위해 장학금이나 봉사시간 제공 등 학교 측의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장학금 관련 행정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단과대학 별로 통일된 기준도 없고, 정해진 장학금 액수도 없는 실정이다. 예술디자인대학 소속 학

과에는 ‘밝은사회장학 C유형(단대학생간부)’라는 명칭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일부 단과대학의 학과 학생회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학팀 최문선 계장은 “단과대 소속의 학생회 장학금은 각 단과대 내 예산 편성에서 정해진다”며 “각 단과대가 자율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어서 장학팀에는 학생회에 대한 장학금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종학에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생지원처에서 장학팀에 요청을 했을 시 지급되는 구조로 처리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단과대학 학생회와 학과 학생회 장학금은 각 단과대학의 자율예산 내에서 처리되다 보니 각 단과대마다 기준과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단과대학 행정실에선 학과와 학과의 협동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외국어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학생회에 대한 장학금은 배정된 예산 내에서 매번 학과장 교수와 행정실 측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다”며 “학과장 재량이 개입되는 만큼 학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른 단과대학의 상황도 비슷했다. 국제대학에서는 단과대 내의 학생회에 대한 장학금 수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단과대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장학금 수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체육대학에서는 학생회장이 추천한 명단을 가지고 자체심의를 통해 지급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관된 장학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종 학 측은 향후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행정실 간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 측은 “단과대 학생회 장학금에 대한 사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보다,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각 단과대학 행정 실 및 장학팀과 논의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영어학부, 2018년부터 두 개 학과로 개편

영어학부 두 개 학과로 개편

정현진 기자 jhj881@khu.ac.kr

【서울】 영어학부(영어학과, 영문학과, 통번역학과)가 2018년부터 응용영어통번역학과와 영어영문학과로 나누어 운영된다. 문과대학 김종복(영어학) 학장은 “학부제의 문제로 지적돼 온 학문의 지나친 세분화를 막고 학생-교수 간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개편의 이유를 설명했다.

편제개편은 작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영어학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제개편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학생회는 개편 치관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개편 의지를 학교에 전달했다. 2018년도 교과목 개설에 맞춰 11월까지 주요 사항을 확정 지어야 함을 고려하면, 개편까지 남은 시간은 8개월 남짓이다. 이 동안 교육과정을 2개 학과에 맞춰 개편해야 하고 지난해 설명회에서 김 학장이 약속한 ‘통번역학과 교수 충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까지 하나로 운영돼 온 학생회와 공동아리 운영 문제도 남아있다.

교과과정, 기존 과목 유지하며 새로운 과목 개설 목표

지난 20일 영어학부는 교과과정 개편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재학생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과별로 전공 시행세칙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논의했다. 시행세칙은 2개 과가 향후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1998년, 현재의 영어학부 체제로 전환된 이후, 편제개편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였다. 한 학부로 통합 운영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각 과가 개별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교수와 학생 간 교류 부족도 문제로 꼽혀왔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통번역학 전공의 학생은 “전공 담당 교수님이 아닌 영문학 교수님에게 진로 상담을 배정받아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효율적이고 긴밀한 학생 지도를 위해 학과제로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과과정 개편이다. 오는 10월에서 11월, 내년도 수강신청을 위해 교과목을 확정하려면 그 전까지는 개편안을 완성해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과과정은 재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과목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



편될 예정이다. 김 학장은 “기존 수업의 최소 60~70% 정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업에서 변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라며 “재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향후 각 과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학부로 입학한 17학번 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는 사라질 수업에 대한 대체과목을 지정해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영어학부에는 13명의 전임교수가 소속돼 있지만 그 중 통번역학과 전임교수는 단 2명에 불과하다. 2018학년도부터 영어영문학과 42명, 응용영어통번역학과 41명의 신입생이 들어온다. 문과대학에서 비슷한 수준의 정원을 가진 사학과에 9명의 교수가 있음을 감안하면 응용영어통번역학과의 교수 총원율은 텁텁이 낮다.

통번역학과 교수충원 시급

김 학장은 “응용영어통번역학과의 신입생 정원을 생각하면 최소 8명 이상의 교수를 두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임자만 찾는다면 올해 안으로 2~3명까지도 채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영어학부 학생들은 탄원서와 재학생 60여 명의 연대서명을 문과대학 행정실에 전달하는 등 통번역학과 교수 초빙을 위해 노력했다. 행정 차원에서도 매 학기마다 공채를 열고 우수 교원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김 학장의 설명이다.

김 학장은 “점진적인 채용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8~10명의 교수진 구성은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학부는 늦어도 4월까지 교과과정의 핵심을 담은 초안을 완성하고 6월 말까지 모든 부문의 초안 작성과 마칠 계획이다.

2017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다전공 신청 및 취소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포기 기간: 2017. 4. 3(월) ~ 4. 7(금)

● 다전공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 생후 학생은 신청할 수 있음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2학기 이상 등록을 했고 재학 중인자

2)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신청만으로 이수신청을 승인함

3) 국제캠퍼스 학생 중 서울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신청하는 학생도 동일하게 신청함

4) 서울캠퍼스 학생 중 국제캠퍼스 전공을 다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제 학자지원원과 인내문 참조

5) 다전공은 제3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음(본인의 전공 외에 2개 전공의 다전공 가능)

* 2012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3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 할 수 없음

* 호텔관광대학 학생의 동일학부 내 다전공 신청에 관한 사항은 호텔관광대학 행정실로 문의바람

나. 다전공 선발 인원(첨부: 선발 정원 참조)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 경영학과는 전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을 서울, 국제 캠퍼스 별로 각각 선발함

2) 연간 선발 인원으로 학기 선발 후 전년 인원을 허가기에 선발함

3) 학부 내 다전공 신청자와 연계전공 신청자는 인원 제한 없음

다. 다전공 선발 기준: 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별로 선발함

* 경영대학 다전공 신청 자격기준

- 경영학과: 전학년 평점평균 3.30 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자

- 회계: 〈세무학전공〉: 전학년 평점평균 3.00 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자

라. 다전공 선발 학과(첨부: 선발 정원 및 다전공 이수불가 전공)

1) 다전공 이수는 문과대학, 경영대학, 학과, 국제 캠퍼스 소속 대학에 설치된 전공을 대상으로 한 단, 폐지된 전공, 특성화고 출자자 전형 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문화관련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와 국제캠퍼스 소속 전공 중 다전공 이수 불가 전공은 제외함

2) 다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학과(부) 편제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마. 다전공 신청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제2전공”란에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 → “제3전공”까지 선택 → “저장” 클릭

* 학부별로 소속되어 있는 학생 중 제2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제2전공 신청 후 제3전공 신청을 진행해야 함

2) 신청한 본전공과 다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2개 트랙까지 신청 가능)

3) 전공 신청정보에 “신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신청정보에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다전공 포기 안내

가. 대상: 이수 중인 다전공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나. 포기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이수 중인 다전공 철명을 선택 → “빈 칸을 선택” → “저장” 클릭

2) 전공 신청정보에 “취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

다. 유의사항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다전공 포기를 한 경우, 다시 다전공을 이수 하려면 새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포기”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2) 편제가 개편된 다전공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사지원과(061-0053~4)로 문의바람

● 다전공 승인 및 포기 확인 기간: 2017. 4. 19(수) 예정

가. 확인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2) 승인된 경우 “상태” 필드의 내용에 “Y”로 표기됨

나. 유의사항: 이수 학점이 받지 못한 경우, 다전공 과정을 이수 할 수 없음

* 다전공 관련 세부 문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바람

첨부: 다전공 선발 정원 및 다전공 이수불가 전공안내

경희대학교 교무처



교육여건지출은 삭감, 행사비 등 소모성지출은 ‘요지부동’

2010~2017 지출내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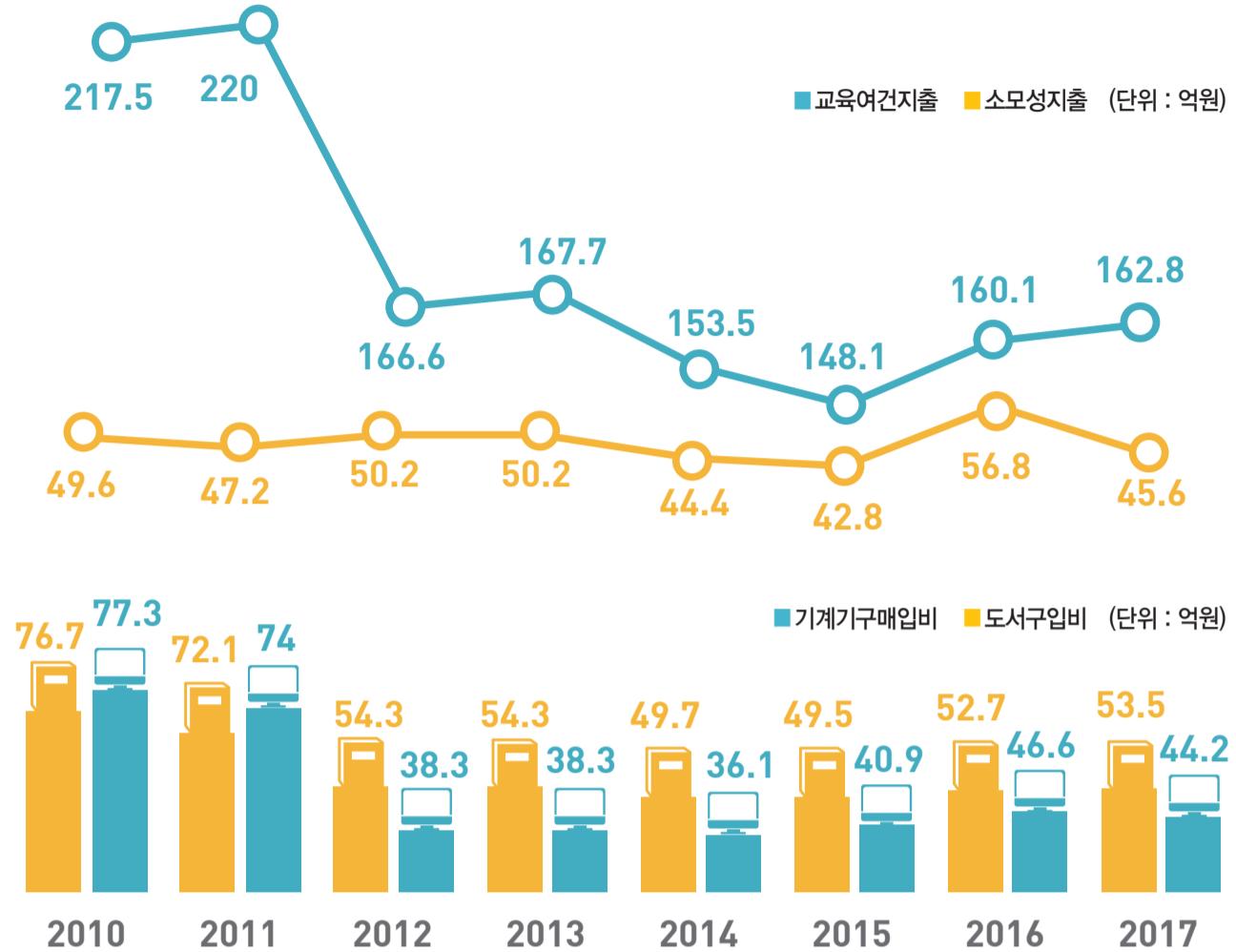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교육여건 관련 예산이 2012학년도 53.4억 원 삭감된 아래로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교육여건지출로 편성된 예산은 162.8억 원으로, 5년 전 삭감된 이후 2011학년도 결산액의 67~77% 선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모성지출은 40~50억 원 수준에서 꽃꽂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계구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로 구성된 교육여건지출과 흥보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로 구성된 소모성지출의 2010~2017학년도 예산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2016학년도 수치는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2016학년도 이전 수치는 결산내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소위 ‘교육소비자’로 불리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서비스하는데 드는 실질비용이 바로 교육여건지출이다. 그중에서도 실험실습비는 특히 관심을 끈다.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해 학교 교육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율예산 감축으로 학교가 몸살을 앓던 시기에는 터져나온 “우리 학생들은 실험실습비를 53만 원 씩, 총 3억 원 별도로 납부하고 있지만, 해당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 수 없다”, “당장 다음 학기 모델수업에 필요한 모델료 조차 없다”라는 등의 하소연에서 학생들이 실험실습비를 체감하는 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1-2012 예산 삭감 거치며 기자재, 도서 구입비용 굳어져

그러나 확인결과 실험실습비 지출은 학교 재정을 축소하는 와중에도 60~70억 원 선에서 타 계정에 비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예산액에 비해 결산액이 8년 동안 항상 적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심하게는 2014학년도, 예산액보다 약 20억 원 가량 덜 쓴 해도 있었다. 각 자율예산 운영단위가 실험실습비를 지출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어대학 민관동(중국어학) 학장은 “실험실습비로 처리하는 것은 타 항목에 비해 처리기준이 까다롭다”며 “영수증 종류가 구분돼야 하고, 증빙해야 할 사항이 (타 항목의 지출보다) 많다”고 우리신문에 밝힌 바 있다.



147개 사립대학 중 소모성지출 상위 5개 대학

순위	총보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1	고려대	2,897	연세대	9,353	고려대	751	연세대	938
2	남서울대	2,818	고려대	3,797	건국대	682	가천대	453
3	경동대	2,777	대전대	3,226	한국기술교육대	619	경희대	451
4	세명대	2,290	한양대	2,797	연세대	541	아주대	405
5	백석대	2,110	경희대	2,150	한국산업기술대	486	이화여대	324
:	:	:	:	:	:	:	:	:

단위 : 백만원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2015 결산안 기준

교육여건지출 총액이 줄어든 것은 기계기구매입비와 도서구입비 감축 때문이다. 기계기구매입비는 교육용 기자재 등을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도서구입비는 중앙도서관 장서구입과 교육용 DB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이다.

실험실습비가 주목받는 통에 수업용 기자재 부족을 실험실습비에 관한 문제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은 기계기구매입비 부족에서 발생한 문제다. 지난해 자율

예산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운영위원회가 각 학과 기자재 부족 현황을 비롯한 교육여건 실태를 수집하고 나선 일이 있었다.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관화 실 기자재가 고장 나 교수님의 개인 작업실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는 목공용 장비도 부지기수다”라거나 “언론정보학과 램실에선 90년대 기자재를 쓴다”는 등의 말들이 각 단과대학의 회장을 사이에 오갔다. 기계기

구매입비는 2010, 2011학년도 70억 원 대에서 2012학년도부터 50억 원 대로, 2013학년도부터는 2010학년도의 반절 수준인 30~40억 원 선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44.2억 원이 책정돼 있다. 신축건물에 설치될 기계기구매입비용 16.7억 원 가량이 포함된 금액이다.

도서구입비 또한 2010학년도에는 76.7억 원 사용됐으나 2012학년도를 기점으로 급감해 올해는 53.5억 원이 책정됐다. 사

실 우리학교는 장서 수에선 타대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이한순 계장은 “장서 수에는 구입도서가 아닌 기증도서나 연속간행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장서 수 증감은 예산사정과는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적은 예산 탓에 대학도서관진흥법의 기준에 맞추는데 부담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는 ‘2012~2020 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며 재학생 1인당 도서자료구입비로 매년 215,000원 이상 지출할 것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150,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교育부는 매년 ‘사립대학 예산편성 의사향’을 작성하며 ‘학생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실험실습비를 증액’할 것과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 등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을 각 대학에 당부한다. 그러나 우리학교 교육여건지출은 감소세인 것에 반해, 소모성지출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소모성지출은 표본이 된 2010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해마다 40~50억 원여가 쓰이다가 지난해는 표본연도 중 최고액인 56.8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는 45.6억 원이 책정돼 있다.

147개 교 중 행사비, 회의비 순위권 재정운영 우선순위 재고해야

소모성지출 중 행사비와 회의비는 올해 초 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한 147개 대학 중 우리학교가 각각 상위 4위, 상위 3위 대학으로 꼽혔다. 이는 2015학년도 결산내역 기준의 결과이며, 지난해 행사비, 회의비지출은 2016학년도 추경예산 기준 각각 27.8억 원, 5.5억 원으로 2015학년도보다 더 늘었다. 특히 주로 다음과 같은 음식물을 마련하는데 쓰이는 회의비는 소모성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타대학 대비 액수가 크다.

유독 소모성지출 규모는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의 소모성지출을 살펴보면 16.2억 원(성균관대 2015결산)부터 130.4억 원(연세대 2015결산)까지 다양하다. 그만큼 각 대학의 대학 운영기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정이 소모성지출이다. 총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동결돼 가용예산은 수년째 저지부동. 재정축소가 필연적인 상황이지만, 지출의 규모를 축소하는 우선순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4월 둘째 주(4.3 ~ 4.7)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현대글로비스 채용설명회	4.5(수) 16:30~18:00	청운관 B17호	
인투티브서시킬 채용면접	4.5(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취업심리학-나와 면접원의 심리(박정욱교수)	4.3(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취업특강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사전신청필요(행사당일까지 가능)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무료

※ 신청 후 '합격여부'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사전신청 학생 및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자는 당일 해당 장소 출입문 쪽에 비치함.

• 출석 협조전달금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및 배부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기관마다 참고

2. 취업진로지도 및 맞춤 컨설팅(취업상담)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면접스킬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유형	일시	담당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전문 컨설턴트)	이연의	오비스을 355호	종합정보시스템 '수입/성적/상담' 신청
		박언경	제법학관 107-2호	
		홍상기, 오신종	청운관 6번 상담실	

• 상담신청자 의무 : 취업준비 검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당 전 ~ 후 각 1회(총 2회) 필수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취소불가(상담 당일 1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출력하여 지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사회진출 지원 5 Step – 사회진출 Skill 지원프로그램

교육내용	일정	장소	주요내용	강사이력
엔지니어 직무의 이해	4/6(목) 18:30~20:00	학생회관 2층 디목적 세미나실	이공계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엔지니어 하더라도 직무적 능력이 많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엔지니어 직무의 특성과 특징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설계, 공정, 생산, 품질, 필드에 걸쳐 다양한 엔지니어 직무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임상언교수 (한) 헤드헌팅사 에이피씨 대표 (한) 경희대학교 경집교수 (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근무 4/4(일) 예정 학생자부담 1인원
LG그룹 삼성그룹 SK그룹 모의면접 인성면접	4/4(일) 4/11(일) 4/18(일) 4/25(일)~27(일) 18:30~21:30	1. 모의면접 2. Feedback	실전 시험적응력 향상을 위한 동일 모의시험 모의면접 향상 후 문제풀이 등 모형영상 강의제공	4/4(일) 예정 학생자부담 1인원 4/23(일) 예정 학생자부담 1인원 면접정리 대상자 (서류정리/인적/합격자)
1:1 컨설팅 화 or 수 목	월~금 10:00~17:00 화 or 수 12:00~17:00 목 12:00~17:00	전문상담원 김이준 전미리	전문상담원 채용서류 Clinic 및 취업진로상담 채용서류 Clinic 및 취업진로상담 자기 이해, 진로설정,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	“채용 상담” 경우 이력서, 자소서 시사 전업로드필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예약 확인 가능”
일정 멘토명	4/5(수) 18:00~20:00	최웅철	주요내용	멘토 주요이력
4/5(수) 19:00~21:00	양범식	1. 취업준비에 임하는 자세 - 입사지원자, 자소서 작성, 면접 TIP 2. 건설회사의 분야별 업무 - 토목/건축 전공 후 건설		

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 2편 :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민의 힘 보여준 ‘촛불대선’, 노동 존중받는 국가 만들겠다”

서언회 기자간담회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신문은 지난달 20일 송실태에서 26개 대학신문사의 연합체인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와 함께 대선후보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만나봤다. 심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조치를 강조했으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안까지 제시했다. 또한 대학교육개혁을 위한 방안과 함께 경제분야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도 제안했다.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 대선’이라고 생각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진 촛불로 인한 이번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아래로 모든 정부는 친 재벌정책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차기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친노동 개혁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 인생은 나 스스로가 개척해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

Q. 현재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인가?

노랑진 학원가에서 아침 일찍부터 수업을 위해 길게 줄 서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국기차원에선 실업률을 12.8% 정도로 파악하지만 실질적 실업률은 20% 정도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교육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청년고용 대책과 관련해 ‘고용의 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긴급조치는 ▲청년고용특별법 ▲청년실업부조 ▲청년기본소득 이 상 세 가지다.

먼저 ‘청년고용특별법’은 대기업과 공기

업이 현재 수준에서 5%의 청년 추가고용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즉각적으로 24만 5천 개의 높은 수준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 ‘청년실업부조’는 미취업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최대 1년 간 지급해서 청년 구직을 촉진시키는 금이다.

마지막 ‘청년기본소득’은 일종의 ‘사회상속’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받아들이는 돈은 5조 6천억 원 정도이며, 이를 20세 청년들에게 일괄 배당할 경우 1인 1천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

Q. 청년취업을 위한 긴급조치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인가?

필요한 60조 원의 증세방안은 이미 제시했다. 일단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했던 세목들을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세개혁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를 추가로 걷자는 것이 핵심이다. 증세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세금을 더 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에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걷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Q. 박근혜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가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묻지마’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학의 운영방식은 민주화해야 한다. 대학의 구조 자체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육 개혁은 ▲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대학연계협력 촉진법 ▲공동학위제와 통합전형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운영은 민주화해야 한다. 대학 운영에 있어서 평의원회는 학교, 학생, 교수 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하되, 국가와의 소통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대학서열화의 해소를 위해선 ‘대학 연계 협력 촉진법’을 만들어 ‘대학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대학 간 학점 교류, 전학 및 전과 그리



지난 달 20일 송실태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정현진 기자)

고 공동 교육과정의 첫 단계로 공동학위제와 통합전형까지 진행할 것이다.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도 준비할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학들은 국가나 재계의 개입으로 인한 대학의 공공성 훼손이 큰 문제로 되고 있다. 돈과 권력에 의해 훼손되는 대학의 공공성을 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다.

Q. 국·공립대를 넘어서 총장직선제를 사립대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립대에는 사외이사를 도입하는 ‘개방형 이사제도’가 보다 실효성이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이사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재단 일가가 휘두르는 사립대 비리는 일정 부분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대부분 대학들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장학금 제도로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사립대는 현재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현재 국가장학금에 4조 원을 쓰고 있는데, 3조 4천억 원의 국고를 추가로 투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Q. 심 후보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현실성과 경제적 여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저성장 시대에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저성장 시대에 최저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월 2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았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의 인상은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영세업자들에게 전가되면 애초의 의도가 실현되지 어려워질 수 있다. 대기업과 원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엄격히 할

후보약력	
학력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병역	해당사항 없음
종교	천주교
경력	17,19,20대 국회의원

예정이다. 이외에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 가입비 부과체계를 개선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이다.

Q. 현 시국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본인은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시민 특히 청년들과 함께 일선에서 불의한 정권, 박근혜 대통령 과면에 앞장섰다. 앞으로의 국정운영도 청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개혁은 어렵다. 불평등과 부조리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질실한 요구, 절실한 의지가 바로 청년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과감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후보자가 살아온 길은 그에 가장 부합해 청년들의 개혁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안내

2017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대상: 공학계열 학부생(최소 2인 이상, 타 학과간 구성 가능)

▶ 신청방법

- 기간: 2017.3.20.(월)~4.20.(목)
- 방법: 참가신청서 이메일 제출(icee@khu.ac.kr)
- 신청서 다운로드: 공학교육혁신센터 공지사항 참조(abeeek.khu.ac.kr)

▶ 활동내용

- 창의·융합적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직접 시제품으로 제작해보는 프로그램
- 산업체 연계 공과대학 종합설계 프로그램 주제로 선정할 시 기업 현장 방문 및 면담 등이 제공될 예정(공지사항 참조)

▶ 지원혜택: 시제품 제작 재료비, 경진대회 참가경비 지원 및 우수팀 해외 연수 기회 제공

▶ 시상내용

구분	시상내용	부상
교내 경진대회	금상, 은상, 동상 (경희대학교 총장상)	
거점 경진대회	금상, 은상, 동상 (성균관대 공학교육기捩센터장 상)	
전국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후원기관장상	상장 및 상금

• 시상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 일정

- 제안서 심사: 2017.05.10.(수)
- 교내 경진대회: 2017.6월
- 창의적 종합설계 거점 경진대회: 2017.9~10월 중(교내 입상자 대상)
- 창의적 종합설계 전국 경진대회: 2017.11월 중(거점대회 입상자 대상)

▶ 문의

-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031-201-3254 또는 icee@khu.ac.kr

행복기숙사 이름을 제안 받습니다

2017년 1학기 행복기숙사가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 들어섭니다. 학생 900명을 수용하는 대운동장 행복기숙사는 경희의 또 다른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뜻 깊은 건물의 이름을 짓는 일에 구성원 여러분의 참여를 다음과 같이 청드립니다.

1. 제안방법

- 대학 홈페이지 하단의 'Links'에서 <행복기숙사 이름 제안하기> 클릭
- 제시판에 첨부된 한글 파일을 다운 받은 후 형식에 맞춰 작성 후 업로드
- *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로도 제안 가능

2. 기간: 2017년 4월 3일(월)~4월 16일(일)

3. 주의사항

- 제안하는 이름이 외국어 혹은 한자일 경우 발음과 뜻을 명확하게 기재
- 이름의 의미가 경희의 역사, 철학, 비전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 제안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4. 대운동장 행복기숙사의 이름을 제안해주시는 분들 중 6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5월 8일 대학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당첨자 게시 예정)

5. 유의사항: 제출된 모든 이름의 저작권 및 사용권한은 경희대학교에 귀속됩니다.

6. 문의: 서울캠퍼스 생활관(02-961-0376)

여러분이 제안해주시는 명칭은 대운동장 행복기숙사의 이름을 선정하는데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나지 않은 세월호의 상처 철저한 조사만이 국가의 미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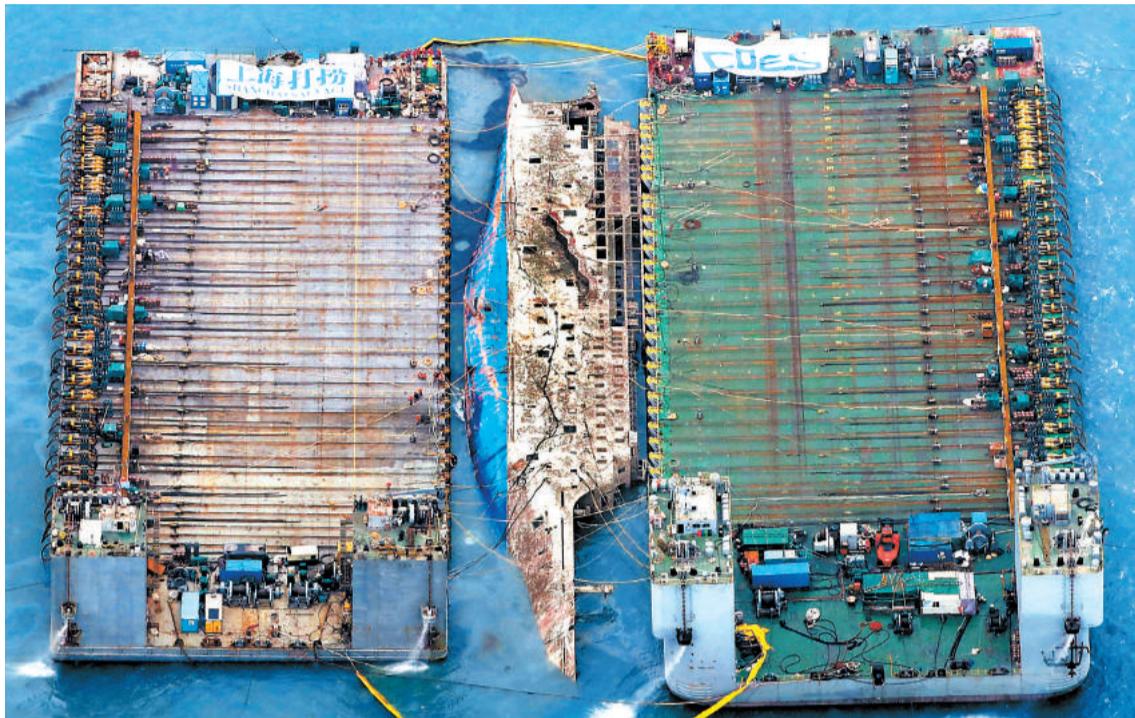
전문가칼럼

송영복
스페인어학 교수

세월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멍멍하다. 나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체 인양 과정을 생중계하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런데 역시나 참 말이 많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양극화를 부추긴다”, “좌파들의 이용물이다”라고 말이다. 세월호와 관련한 비판적 목소리의 끝판왕은 뭐니 뭐니 해도 “몇몇 위해 수천억 써야겠나”가 아닌가 싶다.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나아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끌고 가더니, 거기에 더하여 돈 이야기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을 자극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 보존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후속조치를 -비록 많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만 한다. 너무도 명백하고 충분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의의 문제이다.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의하여, 혹은 사회의 구조화된 탐욕과 부패에 의해 배가 침몰했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300여 명의 사람들이 무능하고 의도적인 구조 실패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선체를 인양해서 보존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상식이요, 기본 -물론 작금의 나라꼴을 보자면 뭐가 상식이고 정의인지 알 수가 없지만-이다. 하여간 이번에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삼천 명, 아니 삼만 명이 될 것이 너무 나도 뻔하다. 사실 이제까지 잘못된 국가와 사회로 인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지만 조사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어디 한두 번



3월 23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사진제공 : 중앙일보)

이라. 그렇게 쌓이고 쌓여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3명 혹은 30명이 죽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300명에서 면죄야하지 않겠는가. 철저히 조사해서 분명하게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더 많은 우리의 재산과 목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내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과 조사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고 한들 이를 포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들은 그들 가족의 빠 한 조각이라도 건져 물어주고 싶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차운 바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오죽하겠나. 그러나 뺏조각 하나라도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밖에 없다. 그게 사람이다. 물론 어떻게 보면 부질없고 비경제적인 일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밥만 잘 먹고 최

고급 스마트폰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때로는 시 한편으로 물기도 웃기도 하고 미소 하나에 행복해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소위 인문적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더없이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이유다. 우리는 많은 돈이 들어도 어머니의 산소에 가고, 노래를 듣고, 데이트를 하며,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극히 비경제적인 활동을 한다. 그걸 비경제적이라 칭한다면 말이다.

그렇지만 불과 몇 안 되는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느냐고 되묻는 사람들은 있다. 그러나 권력과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상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희생자들의 죽음을 내 가족의 죽음으로 느낀다. 세월호가 물속으로 곤두박질치던 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애절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물론 올린 머리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짓 일에 별 관심도 없었겠지만 말이다. 많이 울었다. 내가 아직 감성이 살아있구나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자

꾸 그 객실 안에서 이리저리 탈출구를 찾는 상상을 하게 되고 온몸에 바닷물의 차가움이 느껴지는 듯 소름이 돋기도 했다. 생존 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으며 무의식중에 기도를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뉴스를 들었다. 혹시 무슨 소식이라도 없을까.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이 되었다. 많은 상처를 받았다. 스트레스 성 장애에 걸린 것이다. 우리의 새끼와 친구들을 편안히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유가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알량한 빼조각 일지언정 그거라도 붙잡고 같이 한번 실컷 울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고통을 수습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한다. 세월호 인양과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극히 최소한의 값진 비용이다. 물론 그 비용도 아무리 많아봐야 탐관오리들의 금준미주(金樽美酒)나 옥반가(玉盤佳肴)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되지 않겠지만 말이다.

참여마당

최병희
(식품생명공학 2013)

어제의 나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다

‘축하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8 평창 자원봉사자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받은 메일의 내용이다. 작년에 신청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면접심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이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처음 자원봉사를 신청할 때, 주변에선 많은 걱정을 했다. “4학년이면 남들 다 공부하고 있을 텐데 자원봉사를 할 시간이 있나?”, “너 말고도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뽑히기는 하겠나?” 같은 이야기들. 물론 나도 알고 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그러므로 여유 부릴 새도 없다는 것을.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내가 되자.’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기회를 포기한다면 나는 어제보다 나아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지원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점을 나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실패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실패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두려움만 남을 뿐이다. 그래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당당히 합격했다. 사람들이 말했던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된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한 도전, 위기의 가면을 쓴 기회가 보다 발전된 나를 만든다

기회는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찾아온다. 쉽고 편한 것에 안주하는 삶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지 그뿐이다. 나 역시 자원봉사를 위해 쏟은 많은 시간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 시간으로 인해 나는 분명히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직 모른다. 확실한 점은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반드시 후회했을 거라는 점이다. 만약 내가 이 기회를 포기하고 그 시간에 남들 따라서 공부했다면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더 넓은 세상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 ‘나보다 대단한’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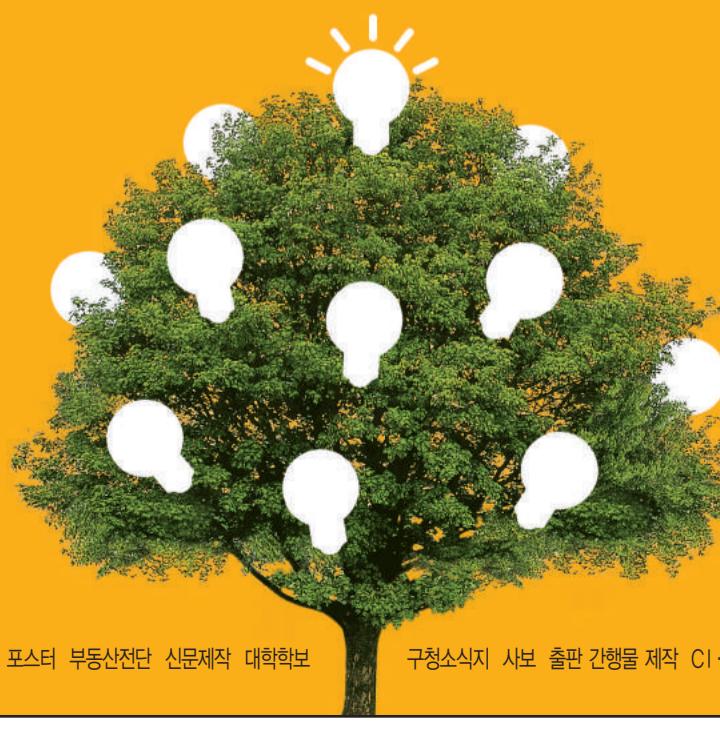
우리는 타인의 의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다른 이들의 선택을 따라가는 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까? 내 삶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다. 그렇게 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어제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기획

영국 사투리를 쓰는 한국 청년 '코리안 빌리'를 만나다

유튜브 스타 공성재 동문

설지연 기자 jy0622@knu.ac.kr

#. 영국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영상으로 화제가 된 한국 청년이 있다. '영국 사투리' 유튜브 영상으로 영국에서 화제가 된 후, BBC 방송에 출연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초청을 받는 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한국 청년은 '코리안빌리(KoreanBilly)'라는 유튜버(YouTuber)이다. 채널 구독자만 5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랑 받고 있는 코리안빌리, 공성재(국제학 2010) 동문을 만났다.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는 공 동문의 원래 꿈은 방송기자였다. 재학 중에는 국제캠퍼스 방송국 대학의 소리 'V.O.U'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할 만큼 방송 일에 관심이 많았다. 졸업을 앞두고 대부분의 학생이 그러하듯 취업 전선에 나섰지만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방송국이 없다면 직접 그 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공 동문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다.

처음에 그는 전공을 살려 영어나 영국문화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다.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 '영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슬랭(Slangs)'과 같은 영상들 이었다. 참신한 주제를 찾던 중 4학년 당시 교환학생 신분으로 다녀온 영국 북서부 지방의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가 떠올랐다. 평소 품고 있던 영국에 대한 동경 때문일까, 그는 런던과 멀리 떨어진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떠났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국 사투리를 배웠다. "섬나라인 영국에 다양한 사투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그런 사투리들이 각자의 개성을 지닌 채 잘 보존돼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갔어요"

공 동문은 표준 영국식 영어와 사투리를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표준식 영어와 리버풀 사투리의 악센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발음의 차이를 직접 보여주는 형식 이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조회수가 50만 회에 다다를 정도로 화제가 됐다. 정체 모를 아시아 청년이 영국 사투리를 맛깔나게 구사하고 있었다. 많은 영국인들이 공 군을 주목하게 된 이유이다. 그가 사투리를 구사하는 영상은 BBC 방송의 오프프로그램인 'Have I Got A Bit More News For You'에도 소개됐다. 출연자들은 그의 영상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인기가 높아지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초대장이 왔다. '발음사전' 발간 100주년을 맞아 기념 영상을 공 동문과 함께 찍고 싶다는 것이다. 그간 사전이 지니고 있던 '지루하고 두꺼운 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케임브리지 대학은 유튜브 스타인 그와 함께 사전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원했다.

그는 다시 찾은 영국에서 사전을 만드는 방법, 사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 영어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영상을 촬영했다. 영국이 좋아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났던 청년이, 영국에서의 경험으로 사랑을 받고 이젠 초청을 받아 영국에 가게 된 것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만든 교재로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런 곳에서 초청을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영어에 대해 원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곳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는 그의 얼굴에는 행복 가득한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보통의 성공스토리들이 그렇듯, 그의 채널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영상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혼자 하고 있기에 처음에는 영상 제작 자체가 큰 어려움이었다고 한다. 영상에 대해 쉴 새 없이 고민해야 하는 점도 스트레스가 되곤 했다. 그렇지만 고생해서 만든 만큼 영상 하나하나에 애착이 간다는 공 동문은,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일에 제법 익숙해져 재미가 붙었다고 한다.

"퇴근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는 시간 빼고는 영상에 대해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지만, 고생 끝에 재밌는 영상이 탄생했을 때 즐거움을 느껴요"

많은 영상 가운데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그에게 지금의 유명세를 안겨 준 '리버풀 사투리 영상'이다. 애착이 가는 만큼 아쉬움도 많은 영상이기도 하다. "반년 전에 제작한 영상인데 지금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요. 짧은 시간인데 그 때보다 실력이 늘긴 늘었나 봐요."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영상 제작에 대한 열의가 엿보인다.

그는 대학생 때 했던 많은 경험들이 지금 자신에게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말한다. 대학시절 하고 싶은 일들을 실컷 해봤다는 공 동문은 V.O.U. 아나운서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다른 학과의 수업을 들었다. 평소 공부하고 싶었던 언론정보학과 수업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수업을 들으며 다른 분야에 대해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인터뷰 중인 공성재(국제학 2010)동문 (사진= 정현진 기자) ▼ 영국 공영방송 뉴스 BBC Points West에 소개된 코리안 빌리

됐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공 동문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 자신의 꿈이라 답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거리를 던져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워요. 제 영상에 나온 주제에 대해 사람

들이 이야기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 배우려고 할 때 보람차거든요. 제가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작부터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는 분

들을 봤어요. 그렇지만 시작은 서툴러도 되니까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시절 경험 중에 나중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도전의식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요가 필라테스 봉학기 교육 과정 안내

▶ 일반 & 기구과정

다이어트와 자세교정, 통증 치유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 요가 & 필라테스 ★수시접수 가능 / 경희대생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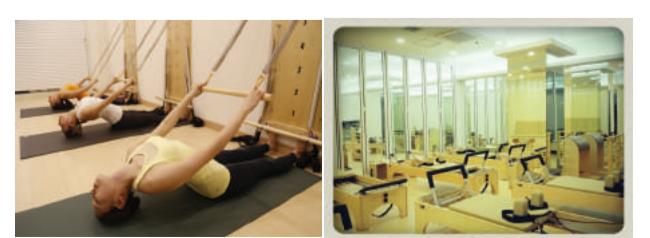
▶ 필라테스 기구 [그룹레슨]



지도자 과정 (요가, 필라테스 자격증 취득)

초보자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 개인레슨 3회 기적 [EVENT]

www.khuyogapilates.com
cafe.naver.com/drjungyoga



★ 1:1 개인, 2:1 듀엣 별도 문의